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 사사기 17:1-6

신 67 쉼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이 말씀을 기준으로 둔 선택이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은혜의 찬양 203장)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2 내 주여 뜻대로(찬송가 549장)

-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 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 읽기 사사기 17:1-6

-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 배경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의 영적 혼란을 보여 주는 본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돌려주고, 어머니는 그 은 일부로 여호와를 위한다며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그 우상을 집에 들여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집 안에 성소를 만듭니다.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후 떠돌이 레위인을 만나게 된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삼고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레위인도 이익을 좇아 제안을 받아들이며, 이는 당시 영적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유익을 따랐던 시대 상황을 보여 줍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뒤,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삿 17:13)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외형적 형식과 사람을 의지한 잘못된 신앙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자기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태도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사기 17장 전체는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

엘의 신앙을 축소하여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분명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적혀 있었고, 제사장 또한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모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안위와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17:6)라고 말하며,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삶은 결국 왜곡된 예배와 혼란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적용

- 1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운 적이 있지는 않나요?
- 2 우리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보세요.

말씀 관찰

1 미가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나요?(5절)

답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해설 미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축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기준대로 신앙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미가의 신앙은 말씀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돕는 도구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이 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줍니다.

2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말은 무엇인가요?(6절)

답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설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는 옳고 그름이 흐려지고 신앙도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아닌 혼란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4-2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사사기 17장 6절

작곡 조미진

F/G C G/B F/A C/G

그 때 에 는 이 스 라 엘 에 - 왕 이 없 었 으 므 로 -

5 FM7 C/E D7 G(sus4)

사 람 마 다 자 기 소 견 에 - 움 - 은 대 로 행 하 였 더 - 라 -

10 G FM7 C/E Dm7 F/G C G C

자 기 소 견 에 움 은 - 대 로 행 하 였 더 라 사 사 기 십 칠 장 육 절 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바쁨과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매일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